



대한설비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월 6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설비건설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비건설인 2015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 설비건설인 2015년 교례회 개최

### 신년교례회, 협회 · 조합 공동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지난 1월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설비 건설회관에서 소속 회원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비건설인 2015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 이상일 회장 신년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물량 확산, 경영여건 향상 위한 각종 제도개선 노력”

이상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해 협회

와 조합은 향후 100년을 향한 기반마련을 위해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차근차근 당면한 현안들을 풀어가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인 최저가낙찰제 등 정부 입찰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합심사제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실적공사비 제도 또한 표준시장가격으로 개선 중에 있어서 앞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일 회장은 또 “해외공사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해외건설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함께 국내공사에 적용되는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TF위원회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분리발주 현장점



이상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물량 확산 노력,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 관급 자재 축소, 하도급 관련 등의 제도개선, K-move사업 활성화, 플랜트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 등 발주처 밀착관리와 함께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분리발주 활성화는 물론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설립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라고 밝히며 “연구원 초대 원장은 강한 추진력을 갖춘 중앙대 이연구 교수가 선임되었으며 훌륭한 원장 초빙으로 연구원의 빠른 성장을 확신한다”고 언급한 다음 우리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연구원이 기계설비산업의 싱크탱크 역할과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이상일 회장은 이밖에 “협회 내부적으로는 혁신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존의 5실 7팀 2부에서 2실 5팀 1부로 슬림화된 조직개편과 함께 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업무평가제도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우리협회가

이처럼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올해 사업에 대해 이상일 회장은 “협회는 올해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TF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물량 확산 노력과 함께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와 관급자재 축소 등의 제도개선,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 하도급 예산이 상향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기계설비협회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해외건설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K-move사업 활성화로 회원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및 플랜트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을 통해 플랜트업계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은 저금리 시대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수익사업 확대, IT시대에 걸맞는 부서 및 지점 통폐합 등 조합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기석 설비공제조합 이사장 “경영혁신, 신성장동력 발굴, 조합원 가치증진 매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김기석 이사장은 “조합은 언제나 조합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꾸준한 조직혁신 및 조합원 지원서비스 개발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해에도 한도거래 약정 갱신, 공사이행 보증 입보조건 완화 및 수수료 요율 인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폐지, 해외근로자 재해공제 도입 검토 등 조합원의 이용편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김기석 이사장은 “조합은 수익구조 개선 등 내실을 다지고 조직기능 개선 추진, 경영혁신, 신성장동력 발굴, 조합원 가치증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하고 사전관리를 강화하여 보증지급금 감소 등 조합 경쟁력 강화와 자산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기석 이사장은 또 “올해는 제2차 증장기 경영전략사업 추진의 원년으로 조합 내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강화와 건설산업 저성장 시대에 따른 조합 수익구조 개선 등 내실을 다지고 조합원들과 동반성장 기반 확립을 위한 조직기능 개선을 추진코자 하며 이를 위해 소통강화를 통한 경영혁신, 신성장동력 발굴, 조합원 가치증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올미년 힘찬 전진을 다짐하며 건배 제의

이어서 협회 전국 시·도회장 대표로 백종운 서울특별시회 회장, 박인구 협회 고문, 이영길 전북도회 회장, 이연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이 건배를 제의했다. 이날 건배 제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소망과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았다.



이상일 회장을 비롯한 기계설비건설업계 원로들이 건설경기 회복을 기원하며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좌로부터 정해돈 협회 명예회장, 박종학 협회 고문, 정승일 협회 고문, 홍평우 협회 고문, 백종운 협회 서울시회 회장, 이상일 회장, 박인구 협회 고문, 이연구 연구원 원장, 김기석 설비공제조합 이사장)



### 이연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

이번에 새로 발족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을 맡게 된 이연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원로 회장님들과 회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앞으로 우리 기계설비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기계설비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적, 기술적 연구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은 비록 대여섯명의 인원으로 시작하는 작은 연구원이지만 창의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단시간 내에 우리 기계설비산업계의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있는 산업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종윤 서울특별시회 회장

새해 처음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이 자리는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잘 견디어 왔듯이 2015년은 2014년보다 더 나은 해이며 사업도 더욱 번창할 것으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가기 위하여 건배합니다.

건배!!

### 박인구 고문



내 생애 기분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1989년 11월 25일은 우리업계의 권익향상을 위한 명실상부한 우리협회가 정식 출범된 날이어서 첫 번째 기분 좋은 날입니다.

두 번째 기분 좋은 날은 1996년 5월 9일 대한 설비건설공제조합이 설립된 날입니다.

또 2015년 1월 6일 오늘은 연구원 현판식을 한 날로서 세 번째 기분 좋은 날입니다. 역사적인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모두 손잡고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참석자 모두 손잡고 하! 하! 하!를 크게 외침)

기술개발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합니다. 우리 기계설비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 설립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강력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연구원 설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상일 회장과 협회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설비조합 김기석 이사장과 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초대 연구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연구 교수님은 전 건설업계가 존경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업계의 숙원사업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협회 및 업계, 연구원 발전에 가교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양과 같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리

길 빌며 계획했던 일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배!!

### 이영길 전북도회 회장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덕담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을미년 양띠 해를 맞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모든 걸 갖춰서 자신있게 큰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주전자로 하겠습니다.

주.전.자!!

